

## 이상 소설과 ‘妖婦’

- ‘錦紅’을 중심으로

김면수

### 국문초록

이 글은 금홍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이상 소설의 복잡한 서사 전략 속에서 여성이라는 타자가 “나”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 만남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여성이라는 타자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은 “나”의 타자들이 한결같이 ‘요부’(妖婦, femme fatale)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홍은 배천온천의 기생이었는데 이상과 만났을 때 그녀는 당시 온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매음부였던 것 같다. 이후 금홍은 이상을 따라 경성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는 당시로서는 첨단을 걸었던 “모던걸”로 변신한다. 이러한 그녀에 대해 이상의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매혹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경성의 모던걸 금홍을 요부로서 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성에서 이상은 금홍과 2년 6개월 정도 동거생활을 한다. 이상은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등의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에서 “나”의 “안해”는 “나”를 흡혈하는 “거미”이자 살인자의 모습을 갖는다. 「지주회시」에서 이상은 금홍을 “거미”에 비유하는데 이는 팜프 파탈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뱀파이어의 모습과 흡사하다. 또 「날개」에서는 속임의 서사

원리를 사용해서 그녀를 철저하게 타자화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요부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는 금홍의 정조없음을 비판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였다. 즉 그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안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희생당했다고 그리고 있다.

서양의 경우 요부의 이미지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신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상이 살던 시대에도 여권을 주장하는 신여성이 대두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다. 그녀들은 이념적으로는 새로운 사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상을 실현시킬 뚜렷한 경제적 위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들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신여성의 모습이 당시 남성들에게 줄 수 있는 두려움이란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훼손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금홍이란 여인이 요부의 이미지로 그리면서 절대애정을 소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너, 우리를 속박하는 자, 휘감는 자, 유혹하는 자, 탐색하고 발견하는 위대한 여인이여, 그 누가 너를 미워하지 않으랴! 너, 천진난만하며 참을성 없는, 바람처럼 날렵한데다 티없는 어린아이의 눈을 가진 죄인이여! 그 누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 1. 타자로서의 여성과 ‘요부’(妖婦, femme fatale)의 이미지

이상(李箱, 1910~1937)의 삶과 문학은 몇 가지 원체험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결핵과 같은 질병이 그의 문학에서 중요한 모티프이자 글쓰기를 추동하는 중요한 원천인 것처럼 여성의 문제도 그의 글쓰기가 계속 탐구하고자 했던 중요한 대상이었다. 이상은 실제로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했는데 박태원은 그녀들을 (1) 금홍 (2) 어느 카페의 여급으로 후에 정인택의 아내가 된 여인 (3) 다방을 그만두고 彰文社에 다닐 때 만난 여인으로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큼 有名한 이” (4) 독일 1년 전에 아내로 맞이한 변동림 (5) 유곽에서 만난 여인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9)</sup> 이 여성들은 이상의 소설

에서 “안해”(「지주회시」, 「날개」), “순영”(「환시기」), “소녀”(「단발」), “妍”(「동해」), “금홍”(「봉별기」), “정희”(「종생기」), “妍”(「실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나”와 마주하고 있다.

그녀들은 모두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우선 그들의 외양은 이른바 ‘모-꼴’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유형으로서의 특성일 뿐 그 ‘모-꼴’들 각각의 구체적인 특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어떤 여성도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들은 시종일관 “나”의 의지와 독립해서 행동하며 나의 바람에 역행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인물의 형상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내면 심리의 추이 등은 모두 “나”의 내면을 거쳐 기록되고 묘사되며 평가될 뿐이다. 그녀들은 차라리 하나의 기호에 가깝다. 즉 이들은 한결같이 ‘정조’ 없는 자들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 정조 부재 문제는 이상이 여성이라는 타자와 만나면서 제기하는 주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가 인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十九世紀”와 “二十世紀”의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은 이상이란 한 개인의 삶과 문학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서 ‘금홍’에 주목하고자 한다. 금홍은 이상과 관계한 실제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모티프로 한 소설들이 이상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관계한 여인들 중 금홍은,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가 본격적으로 교제한 첫 여인이자 가장 오랜 시간동안 함께 있었던 여인이었다. 이상이 금홍과 관계한 시간은 1933년 3월 백천(白川)온천에서 처음 만난 이후 1935년 초 헤어질 때까지 대략 2년 6개월이 넘는다. 다른 여인들과의 만남은 1935년에서 1936년 말 도일할 때까지의 2년이라는 시간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실제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상의 문학에서 그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소설에서 이상은 ‘나’의 위치에

1) 박태원, 「李箱의 秘密」, 『여성』, 1939. 5. 참조.

자신이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허구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홍**의 경우는 예외다. **금홍**의 경우에는 직접 ‘**금홍**’이라는 이름을 부르거나 “**안해**”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홍**만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않으며 실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금홍**을 모티프로 한 소설들은 「지주회시」(1936. 6), 「날개」(1936. 9), 「봉별기」(1936. 12) 등이 있다.<sup>2)</sup> 주지하듯이 「지주회시」와 「날개」는 동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김현은 이상의 작품들의 창작 추정 연도를 따져 정리한 후 그 의미를 논구하고 있는데<sup>3)</sup> 이 세 작품들을 창작한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 보면 「지주회시」(1935년 초), 「날개」(1935), 「봉별기」(1936. 7~10)의 차례가 된다. 그런데 「지주회시」는 **금홍**의 2차 가출 이전을, 「날개」는 **금홍**의 1차 가출 이전을, 「봉별기」는 **금홍**을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sup>4)</sup> 즉 그는 **금홍**과 헤어진 이후 **금홍**과의 관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설을 썼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여인들의 경우에 이상은 이렇게까지 그녀와 “나”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상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금홍**이란 인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2) 이 중 「환시기」(1938.6)에서도 **금홍**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모티브가 되는 여인은 **금홍**이 아니라 ‘**순영**’이라는 여인이다.

3) 김현, 「李箱에 나타난 만남의 문제 - 小說을 주로하여, 『自由文學』, 1962. 11. p.257 참조.

4) 최근 이경훈은 이상의 연보를 구성하면서 **금홍**이 1934년에 “몇 번에 걸친” 가출을 했으며 1935년에는 “네번째 가출”을 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경훈 엮음, 『날개』(문학과지성사, 2001), p.232) 그러나 “네번째 가출”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했는지 알 수 없다. **금홍**과의 만남을 사실대로 요약하고 있는 「봉별기」에 의하면 **금홍**은 1934년 8월 이후 두달 동안 1차 가출을 했고 1934년 말에서 1935년 초 사이에 2차 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상은 1936년에 **금홍**과 마지막으로 잠깐 만난다. 그러니까 **금홍**의 가출은 총 2회있었던 셈이다.

는 이 여인과 이상의 관계가 곧 이상문학을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즉 이상 문우들의 회고담이나 이후의 연구자들 중 이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이상과 금홍의 동거를 반도덕적, 비윤리적 성생활이었다며 비판하는 것을 빠트리지 않는다. 어쩌면 이상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나뉘는 회고담은 주로 이상의 성에 대한 기행(奇行)들에 대한 찬반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박태원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그 찬반론의 경계 위에 있다.

事實 李箱은 相當히 發展하였든 外入匠이로그러한方面에 있어서도 놀라운 知識을가져 그것은 그의 遺稿中에도 한두篇散見되나 妓生이라든 娼婦라든 그러한 人物을 取扱하여 作品을쓴다면 可히 外國文壇에 있어서도 對敵할사람이 없을것이다.<sup>5)</sup>

그러나 박태원은 이상을 “相當히 發展하였든 外入匠이”로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그것은 그의 遺稿中에도 한두篇散見”될 뿐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가 “外入匠이”였지만 그의 작품을 모두 그것으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인택은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sup>6)</sup> 그런 점에서 이상의 문학을 ‘성도착증’이나 ‘변태성욕’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경우는 성과 관련한 회고를 극대화한 후 그의 문학을 성의 문제로 환원했다는 혐의가 없지 않다.<sup>7)</sup>

5) 박태원, 「李箱의 片貌」, 『조광』, 1937. 6. p.306.

6) “眞實로 女子를 사랑할줄 아는 男子이면 믿어도 좋다. 그런 男子는 결코 惡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李箱이 바로그런사람이다. 아니 李箱이야말로 女子를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故로 「지주회시」 「날개」 「童叢」 其他 李箱의 作品에 나타나는 李箱과 그의 안해들을 나타난 그대로 받아 드러서는 人間李箱을 正當하게 理解할수 없다. 公開된席上에선 決코 眞實을 告白치 않는 것이 李箱의 「엑센트릭」한 性質이기 때문이다. 作品에 나타난 李箱自身은 모다가 人間李箱의 겉집이 아니면 그림자에 不過하다.” 정인택, 「불상한 李箱」, 『조광』, 1939. 12. p.310.

도덕적·윤리적 범주에서 본다면 이상은 분명 탈선적인(aberrant) 타자이다. 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의 성적 판타지를 해부하는 것은 이상과 그의 여성으로 대표되는 탈선적인 타자들의 이미지의 레퍼토리를 분석하는 것일 텐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남성작가, 이를테면 이상이란 작가의 여성 폼하라든가 성적탐욕과 같은 것만을 읽어내는 데에서 그쳐서는 곤란하다. 문학에서 매춘이나 성의 문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문학 예술의 구조 뒤에 있는 성의 문제를 생산적 충동으로서 이해하는 일이다. 즉 이 나쁜 풍조가 어떻게 그의 예술적 재능 안에서 풍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논구하는 일이다.<sup>8)</sup>

이 글은 금홍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이상 소설의 복잡한 서사 전략 속에서 여성이라는 타자가 “나”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 만남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여성이라는 타자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나”의 타자들이 한결같이 ‘요부’(妖婦, femme fatale)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sup>9)</sup> 요부는 요부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이상의 문학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요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녀들 스스로가 의식적으로건 본능적으로건 요부로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가 그녀들을 요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홍과 같은 여인의 경우에는 이상에 관한 회고담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실제로 요부와 같은 여인이었을

7) 김우중, 「이상론」(『현대문학』, 1957. 5), 정귀영, 「이상문학의 초의식 심리학」(『현대문학』 1973. 7~9), 김문직, 「이상」(『현대문학』, 1967. 1), 유재천, 「성과 비인간화—이상 시의 성문제」(『연세어문학』16집, 1983. 12) 등이 이러한 계열의 연구다.

8) 이 문제에 대해서는 Charles Bernheimer, *Figure of Ill Repute—Representing Prostitution in 19th France*(Duke Univ. Press, Durhan and London, 1997) 참조.

9) 이 글에서 말하는 ‘妖婦’는 ‘femme fatale’의 번역어이다. 그리고 femme fatale에 관한 이해는 Virginia M. Allen, *The Femme Fatale – Erotic Icon*(The Whiston Publishing Company, Troy, New York, 1983)에 기초하고 있다.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상의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홍의 모습은 그만큼 철저하게 이상의 글쓰기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여성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가 그 위험한 여인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요부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 글은 이상의 문학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 특히 금홍을 중심으로 그녀의 실제 삶이 어떠한지 작품과 회고담 등을 통해 추론해 본 후 그의 문학에 나타난 금홍의 모습을 요부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배천(白川)천의 기생으로부터 경성의 ‘모꼴’에 이르는 금홍을 보는 주변의 시선들

「봉별기」에 그려진 대로라면 이상이 금홍과 처음 만난 곳은 배천(白川)온천이다. 그녀는 이곳의 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배천온천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 배천온천은 “午後에 京城驛을 떠나면 汽車로 約二時間 土城驛에서 輕鐵을 搭귀타고 禮成江畔”으로부터 “三十分” 정도의 거리에 있다. “北으로 雉岳山이 이고을을지키고 바로눈앞에 南山이아담히 坐定한곳”으로 당시 서울 근교의 온천 중 경치가 뛰어나 유명했던 것 같다. “元來부터 朝鮮에 有名 하엿더니 서울大監님네가 하도 많이 오시는통에 郡守令監이 이로 接待에 견딜수없어 여름장마때 溫泉을 쓰러뒀어” 버렸다는 전설이 있어 “오늘의 白川溫泉을 캐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온천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곳으로 보인다. 이후 이곳은 조선의 온천 요양을 대표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sup>10)</sup>

10) 吳基永, 「溫泉巡禮-白川溫泉」, 『신동아』, 1935. 1. pp.207~208 참조.

그런데 이곳의 기생이란 무엇일까. 김동인의 소설 「大湯地아즈머니」(1938. 10~11)는 당시 온천에 대한 풍경과 온천에 기생하던 매음녀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천온천 기생으로서 금홍의 모습을 이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온천은 려관의 자량이 쉽지않고 려관은 밥장사만 하고 손님은 **공동탕**으로 가는 것이 보통”인데 “려관에서 **공동탕**까지 왕래가 (츩기 때문에) 불편하여 조선 습속은 봄과 가을을 온천절기로 친다.” 그런데 이 “온천이란 곳은 사람들이 레법과 체면을 집어치우고 겨우 가장 비밀한곳 한곤대만을 감춘뒤에는 남녀노소가 태연히 거리를 다니는 곳”이라 “병인(病人)이 가장 많”지만 한편으론 “천하의 오입장이”들이 모여들고 “암오입장이”들도 “이려관 저려관에 거미줄을 치고 장차 무엇이와서 걸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다부꼬”는 애초에 지방의 카페 여급이었는데 “한해여름을 잘 별면 매일 일원오십전의 숙박료며 잡비를 쓰기도 가을에는 돈백원이나차고 가는 수단가도 적지않다”는 소문을 듣고 온천으로 진출하지만 결국 적지 **않은** 빚만 지고 몰락하고 만다.<sup>11)</sup> 1920년대 후반부터 “藝妓(妓生)는 料理店內 別室 혹은 旅館에서 손님과 동숙하고 작부도 또한 음식점 내 별실 또는 여관·여인숙에서 동숙·동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sup>12)</sup> 금홍이란 여인도 “長鼓소리나는집”의 여인이라고는 하지만 기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다부꼬” 처럼 온천 지역에 기생하고 있던 매음부와 같은 모습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배천온천으로 요양을 간 것이 1933년 3월이고 돌아온 것은 “伯父님 소상”(5월 7일) 때이니까 온천에서 금홍과 “사랑”한 기간은 2개월 정도이다. 금홍이란 여인 역시 다른 온천 지역의 화류 여인들이 그러하듯이 경제적으로 적잖게 궁핍했던 것 같다. 배천온천을 떠나는 “停車場에서 錦紅이에 十圓紙幣한장을 쥐어주었”을 때 “錦紅이는 이것으로 典當잡힌時計를찾겠

11) 김동인, 「大湯地아즈머니」, 『여성』, 1938. 10. pp. 53~54 참조.

12) 손정목, 「日帝下の 賣春業 - 公娼과 私娼」, 『도시행정연구 3』, 서울시립대, 1988. p.306.



다고그리면서울었다”는 것이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sup>13)</sup>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나”가 금홍에게 “禹, C, 等等”을 “勸”한 일은 금홍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한 일인지도 모른다. 즉 이 성적 기행은 단지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안 “나”가 금홍을 도운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금홍이 그들에게서 받은 “十圓紙幣를여러장끄내놓고 어리광석계 내게 자랑도”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사정에서 비롯한 행위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14)</sup>

이런 그녀가 이상이 있는 경성으로 진출하여 이상과 동거에 들어간다. 흔히 이상이 금홍을 불러 들여 다방 제비의 마담으로 앉혔다고 말하지만 그에 관한 자세한 사정은 어떤 기록에도 나와있지 않다. 오히려 「지주회시」에는 금홍이 “나”를 따라 온 것으로 되어있다.<sup>15)</sup> 실제로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두 사람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었을 듯하다. 금홍은 가난하고 빛만 느끼는 온천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大湯地아즈머니」의 “나미꼬”가 온천에 온 신사를 만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처럼 금홍도 경성에서 온 모던 보이에 의존해서 보다 수월하게 경제적인 보장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배천온천에서 금홍과 “사랑”했다는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사랑해서 동거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sup>16)</sup> 또 “나는 전혀 錦紅이를사랑하는데만골몰했다. 못난 소린듯하나 사랑의힘으로 喀血이 다 멈쳤으니까”<sup>17)</sup>라는 진술에서도 이상

13) 「봉별기」, 『여성』, 1936. 12. p.44.

14) 여기서 나와 그녀 사이에 화폐가 “十圓紙幣” 단위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손정목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사창에서 매매춘의 비용이 5원~10원이었다. 당시 공창의 비용은 新町遊廓 料額表(1929.6.1)에 의하면 2원~7원, 사창의 경우 대체로 5원~10원이었다. 아마도 금홍의 화대는 당시 화류계 여인들 중 비교적 높은 가격인 십원이 아니었을까 싶다. 손정목, 위의 책, pp.321~323 참조. 당시 물가의 정도를 보면 1934년의 경우 쌀 한 말 2원 50전, 쇠고기 한근 62전, 숙련노동자 하루 임금이 일본인의 경우 2원 50전, 한인의 경우 1원 50전이었음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고액이다. 「小賣物價調」,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5. 3. pp.121~122 참조.

15) 「봉별기」, 위의 책, p.44.

과 금홍의 동거가 시작될 수 있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지병이었던 결핵의 치료와 금홍과의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런 이해가 이상의 필요였을지도 모른다.

경성에 왔을 때 금홍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금홍의 모습은 이상의 문학에서 드물게 묘사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이상에 관한 회고담에는 자주 등장하며 적어도 이상의 것보다는 구체적이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다. 걸음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때는 그런 때다. 투피스만 입어도 침단을 걷는 여인이다. 그때의 딸로 모던걸이다. 금홍여인은 그런 대로 어울리었다.<sup>16)</sup>

우리는 우선 그녀가 “침단을 걷는” “모던걸”로 변신해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배천온천이라는 지방의 기생이 경성의 침단 ‘모-걸’ 대열에 합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에서 이른바 ‘모-걸’이라 불리운 신여성의 한 부류인 ‘까페-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sup>17)</sup>

다음은 그녀의 외모에 관한 기록들이다.

위선 적당하게 어여뻐고, 또 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오락에 몰들지

16) 여기서 이상이 학창시절 「라-보엠」이나 「춘희」와 같은 소설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으며 특히 「라-보엠」은 거의 암송했다는 문종혁의 증언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문종혁, 「深深山川에 물어주소」, 『여원』, 1969. 4. 참조) 이 소설들은 모두 하층 매음녀와 상류층 귀족 청년 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들은 이상과 금홍의 관계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어찌면 이상은 그가 애독했던 소설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낭만적인 기분에서 모방했는지도 모른다.

17) 「봉별기」, 위의 책, p.44.

18) 문종혁, 앞의 글, p.240.

19) 금홍처럼 당시 기생이 카페걸로 변신하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는 의외로 적잖이 있다. 일례로 竹林生, 「女人群像」, 『신동아』, 1931. 12. p.33의 ‘카페에 버려진 꽃’이란 항목 참조.

않은 듯 싶은 것에 나는 어처구니 없이 놀라면서도<sup>20)</sup>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나 그 당시나 보기로는 스물 네다섯, 차돌같이 뭉친 자그마한 몸집에, 바늘 하나 들어 갈 빈틈이 없는 새침하고 껌직한 미인이다.<sup>21)</sup>

그녀의 외모는 당시 ‘모던 보이’ 들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주었던 듯 싶다. 이상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작은 체구를 지닌 그녀의 미모에 놀라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가 빼어났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늘 하나 들어 갈 빈틈이 없는”, “계산 속이 빨랐”던 여인으로 기억하며 그녀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녀에 대한 회고자들의 태도에는 매혹과 경계가 동시에 들어있다. 이를테면 문종혁은 “춘 기생”, “나쁘게 말하면 작부”라고 평가하고 있고, 박태원은 “아무렇게나 놀아 먹든 그러한 종류의 계집”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금홍이란 여성은 이상을 아는 “원장 사람들사이에 비웃음 가득한 소문”으로 “떠들든 것”이다. 금홍이란 여인이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종로의 ‘모던 보이’ 들에게 경계심을 주었을까? 여기에는 고작 하찮은 춘 기생과 동거를 시작한 이상에 대한 혐오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이를테면 술집의 작부는 유희의 대상이 아니게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중적인 남성의 시선이 금홍과 이상의 관계를 뒤덮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이런 경계의 태도는 당시 ‘모던’ 상류 지식인 사회에 무지한 하층 화류 여인이 끼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의 발로가 아닐까? 이런 태도는 다음과 같은 박태원의 실명 소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아무렇게나 놀아 먹든 그러한 종류의 계집과 함께, 남의 눈을 기여 가며 죄 많은 삶을 살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만 고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으로,

20) 박태원, 「報告」, 『여성』, 1936. p.18.

21) 김소운, 「李箱異常」, 『하늘 끝에 살아도』, 동화출판사, 1968. p.293.

도리혀 이러한 곳에서나마 그들을 용납하여 주는 것이 참말 우리들의 「윤리도덕」을 위하여 크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는 그러한 것을 마음 속에 거듭 생각하러 들었다.…(중략)… 그가 어느 시골 주막의 작부였었으니, 카페에서 카페로 떠돌든 게집이었느니 하고, 무릇 최군을 아는 원각 사람들사이에 비웃음 가득한 소문이 떠돌든 것에 비겨서는…(중략)…최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깨트려 놓은 그 장본인의 몸에서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몇 개의 미점(美點)을 발견해야 그것을 은근히 찬미하였고, 따라서 최군을 비난하는 마음이 점점 얽어져, 그것을 나로써는 어찌하는 수 없이, 이것은 대체 어인 까닭일까, 하고 혼자 생각하여<sup>22)</sup>

박태원은 이상과 금홍의 동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이상을 모델로 한 것이 분명한 이 소설에서 “최군”의 부모는 병들어 누워있으며 처자식을 버리고 나왔다는 점 등을 구태여 첨가해놓은 점이 그러하다. 금홍이란 인물은 상당히 매혹적인 여인이었던 듯하다. “어느 시골 주막의 작부였었으니, 카페에서 카페로 떠돌든 게집”이란 설명은 배천온천 기생에서 카페걸로 변신한 금홍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데 ‘나’는 곧 그 여인의 미모와 분위기에 놀라며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몇 개의 미점(美點)을 발견하여 그것을 은근히 찬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여인을 “최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깨트려 놓은 그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이상의 주변 문우들은 금홍이 이상에게 있어서 ‘妖婦’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참말 우리들의 「윤리도덕」을 위하여 크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완강한 전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시 ‘모-꼴’ 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도 적지 않게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못된 썰(모던 썰)」 「못된 쏘이(모던 쏘이)」”<sup>23)</sup>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름이 유행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특히 ‘모-꼴’ 들은

22) 박태원, 報告, 위의 책, pp.16~18.

23) 최학송, 「세카단의 상징」, 『별건곤』, 1927. 12. p.120.

“遊女로밧게는 더 생각하기 어려울만치 行色이 蠱感的이며, 그 衣裳이 感覺의으로 꾸미어진” 것을 종종 비판받았다.<sup>24)</sup> 또 당시 ‘모-꼴’ 중에는 금홍처럼 지방 기생이었거나 유녀들이었다가 경성으로 진출한 자들과 경성의 공·사창에 있던 매음부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는데 이들은 외양만으로는 다른 ‘모-꼴’ 들과 구별할 수 없었다. 금홍은 당시에 비판받던 ‘모-꼴’의 부류 중 대표적인 경우가 되어 버린 셈이다.

### 3. 금홍 또는 ‘요부’(妖婦, femme fatale)의 기호와 그 의미

#### 1) 「지주회시」 - “거미” 혹은 ‘뱀파이어’(vampire)로서의 여성

금홍을 모델로 한 소설 중 「지주회시」와 「날개」는 같은 공간적 배경을 갖는다. 관철동 「三十三번지」에 「十八가구」가 함께 사는 곳이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상과 금홍이 약 2년 반 동안의 동거생활을 한 이 곳에 대해서 「날개」의 “나”가 그리는 다음과 같은 묘사에 그 실마리가 있다.

그 三十三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十八가구가 죽-어깨를 맞대고 느러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지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에 꽃과 같이 짙다. (...중략...)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자지 않나? (...중략...) 전등스불이 켜진 뒤의 十八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중략...) 여러 가지 내음새가 나기 시작한다. (...중략...) 탕고 도-란 내 땀물 내 비누스내<sup>25)</sup>

24) 박영희, 「所謂『近代女』·『近代男』의 特徵」, 『별건곤』, 1927. 12. p.114.

실제로 당대에 이들의 성적 문란함을 지적하는 자료들은 적지 않다. 특히 남성/여성별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총각좌담회-이무영, 최병화, 박상화, 안희남』, 『신여성』, 1933. 2. 참조.

25) 이경훈 엮음, 「날개」, 『이상소설선 - 날개』(문화과지성사, 2001). pp.68~69. 이후 이 소설에서 인용한 소설의 경우에는 제목과 면수만 적도록 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안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三十三번지 十八가구 가운데서 내 안해가 내 안해의 명함처럼 제일 적시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十八가구에 각기 뽕너들은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안해는 특히 아름다운 한 딸기의 꽃으로 이 함석 지붕 밑 별 안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sup>26)</sup>

이곳을 박태원은 “그것은 내가 일찍이 꿈에도 생각하여볼 수 없었던, 서울에서도 가장기묘한 구획(區劃)”<sup>27)</sup>이라고 설명한다. “나”의 묘사에 의하면 “三十三번지”에 함께 사는 “十八가구” 사람들은 모두 “송이송에 꽃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나”처럼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는 자들인데 “낮보다 훨씬 화려”한 이곳의 밤에 “탕고 도-란 내 뜰 내 비누스내” 등 냄새를 내면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여자인 듯 싶다. 특히 “十八가구에 각기 뽕너들은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안해는 특히 아름다운 한 딸기의 꽃”이라는 구절에서 “나”가 이들을 자신의 아내와 비교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들이 「날개」의 “나”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안해”의 직업과 같은 부류의 직업을 지닌 자들인 것도 틀림없다. 적어도 카페와 같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들일 것이다. “나”는 이곳을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고 하는데 손정목은 더 나아가 이곳을 “분명히 사창의 집단가옥”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sup>28)</sup> 여인을 “꽃”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상투적인 비유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시 매춘녀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용어였음을 감안하면 이 추론도 신빙성이 없지 않다.<sup>29)</sup>

26) 「날개」, pp. 71~72.

27) 박태원, 「報告」, 위의 책, p. 16.

28) 손정목, 위의 책, p. 314. 손정목의 연구에 의하면 식민지 조선은 1920년대를 거치면서 공창은 쇠퇴하는 반면 사창이 번창하는데 1930년대 중반이 그 절정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상의 「날개」를 지목하면서 “자유업 사창”의 집단 가옥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비록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빙성이 높다.

「지주회시」는 이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나”와 “안해”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이상 자신이 금홍과 헤어진 이후 금홍과의 관계에 대해 씌어진 최초의 소설이며 1차 가출 이후 2차 가출 직전의 사이에 있었던 금홍의 모습을 모티프로 하고 있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둘 때 이 소설이 다음과 같이 “나”의 “안해”에 대한 적지 않은 증오로 시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 거미. 안해는꼭거미. 라고그는믿는다. 저것이어서도로환투를하여서거미형상을나타내었으면-그러나거미를총으로쏘아죽었다는이야기는듣은일이없다. 보통 발로밟아죽이는데 신발신티커냥일어나기도싫다.<sup>29)</sup>

이는 아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의 직설적인 표현이다. 이 소설의 서사 원리인 거미와 돼지라는 알레고리는 이와 같은 혐오감과 증오심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의 소설들은 진정한 만남을 바라는 것이라는 김현의 말을 빌자면 이 소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훼손에 관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나”는 한편으로는 “안해”의 가출과 매음으로 “안해”와의 관계를 훼손당하고 한편으로 친구 “뭇”와도 관계도 훼손당한다. 즉 이 소설은 온갖 인간 관계에서 환멸을 느끼는 자의 심리를 각각 거미와 돼지라는 알레고리로 표현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안해는그럼그에게서아무것도안빨아먹느냐. 보렴-이파랑게질린수염자국-뽕한눈-늘신하게만연되나마나하는형영없는營養을-보아라. 안해가거미다. 거미아닐수있으랴. 거미와거미거미와거미냐. 서로빨아먹느냐. 어디로가나. 마조야외는 까닭은무엇인가. 어느날아침에나뻘가가죽을찢고내밀려는지 (...중략...) 쇠와같이

29) 深花郎, 「遊廓은이런곳이다」, 『신여성』, 1933. 5. p.115 참조.

30) 「지주회시」, p.38.

31) 김현, 앞의 글, p.257 참조.

독한꽃-독한거미<sup>32)</sup>

그는 여기서 자신의 마른 몸과 부족한 영양상태를 “안해”가 거미인 탓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특히 “안해”와의 관계가 훼손되었음을 지시하는 알레고리인 이 “거미”의 이미지는 흡사 뱀파이어의 모습과도 같다. 서양의 경우 요부의 이미지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널리 그려졌는데 사이렌(Siren), 키르케(Circe), 살로메(Salome), 클레오파트라(Cleopatra)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여성의 성적 능력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자까지도 희생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뱀파이어의 모습에 비유되기도 한다. 프라즈(Praz)에 의하면 전형적인 팜므 파탈의 이미지는 뱀파이어와 권태 속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몸 자체가 목적이며 성적 카니발리즘을 탐닉하는 이 여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을 죽이고 그를 먹는 이미지를 갖는다.<sup>33)</sup> 이상의 소설에서 거미의 이미지는 거미 자체보다는 이와 같은 뱀파이어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

안해에게서 그악착한끈아풀을글리던지고혈뿔줄다름박질을쳐서다라나버리고 싶었다. 내의지가작용하지안는온갖것아, 없어져라. 단자. 침침이단자.<sup>34)</sup>

“나”에게 아내는 “내의지가작용하지안는” “악착한끈아풀”이며 그는 그로부터 “혈뿔줄다름박질을쳐서다라나버리고싶”어 한다. 아내에 대해서 “내의지가작용하지안는” 증거로 “나”는 아내의 말라가는 몸을 들고 있다. 즉 “뭇”의 카페걸인 “마유미”의 뚱뚱한 모습과 아내의 마른 모습을 대조하면서 “마유미”의 몸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뭇”가 명령해 놓았기 때문인 반면 자기 아내의 몸이 마르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가작용하지안는” 까닭이라고 서술

32) 「지주회시」, pp.44~45.

33) Virginia M. Allen, 위의 책, p.3과 p.63 참조.

34) 「지주회시」, p.54.



하고 있다. 다른 몸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은 곧 가출로 대표되는 아내의 자유분방한 모습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남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여인에 대해서 남성이 갖는 두려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현재의 “나”는 “안해”가 카페에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생하는 존재, 즉 거미와 같은 존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다. 그도 자기 자신을 거미라고 자책하는 부분이 잠시 있지만 그러한 인식은 곧 위 인용문과 같이 아내를 거미로 확신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 “안해”는 악이나 파멸의 속성을 지닌 여인이라기보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약한 여성 내지는 중국에 가서는 타락하고 마는 여성이다. 즉 “나”를 파멸시키고 있는 여인이라기보다는 근대의 퇴폐적·향락적 산업 구조 속에서 그녀 자신이 파멸되고 마는 운명을 지닌 여인에 가깝다. “나”는 그녀를 “쇠와 같이독한꽃-독한거미”이라고 요약하지만 그녀는 의지가 강하다기보다는 약한 존재이다.

“나”의 “안해”에 대한 증오가 현재의 마음 사실보다는 1년 전에 있었던 가출 사실에 있음은 분명하다. 즉 “눈을감고”도 “안해의살에서허다한指紋 내음새를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를먹여살리겠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 카페여급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안해”를 그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가 카페여급의 생활을 보고 특이한 것이 거미는 “돈”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안해”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에 이른다. “나”가 이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거미를 “돈”과 “돈”에 얽힌 “잔인한관계”에 대응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 「날개」 - 속임의 형식에 의해 형성된 악녀의 형상

앞의 「지주회사」에서 “나”가 “안해”의 직업을 카페 여급으로 분명하게 설정해 놓은 반면 그 후에 씌어진 「날개」의 “나”는 “안해”의 직업에 대해 모른

다는 태도를 취한다. 「지주회시」가 “나”와 “안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면 「날개」는 “나”의 “안해”에 대한, 혹은 “안해의 직업”에 대한 “연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해에게 직업이 있었는가? 나는 안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sup>35)</sup>

끝끝내 내 안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아나 보다<sup>36)</sup>

이러한 질문의 반복 와중에 그는 밤늦게 “외출할 뿐만 아니라 래객”이 많으며 “늘 돈이 있”는 아내의 모습을 충분히 묘사한다. 즉 이미 독자들로 하여금 “안해”가 매춘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만든 후에도 “나”는 안해에 대해서 모르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나”의 “안해”의 모습을 철저히 타자화시킨다. 우선 이 서술 방식은 이미 독자에게 친숙한 “아내의 직업”을 낯설게 함으로써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테면 이 같은 속임의 말하기 방식은 매음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쉽게 갖게 되는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고 그녀를 매음녀로 서술할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나”란 인물은 “안해”의 매춘 사실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독자에게 연민과 동정을 산다. 즉 소설 속에서 실제로 안해가 “나”를 속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해에게 속고 있음은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은 “나”가 창조한 여성의 이미지보다 작품 속의 나레이터인 “나”와 자신을 일치시킬 만큼 “나”와 친연해지는 반면 “안해”는 부정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동시에 그 부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35) 「날개」, p.78.

36) 「날개」, p.80.

독자들과 “나”를 동일하게 만드는 반면 이들을 속이고 있는 안해를 철저히 타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 속임의 효과는 한편으로는 질문을 유예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집요한 관찰 또는 엿보기의 방법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한다. 그가 안해의 정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때도 있는데 “안해가 쓰는 돈은” “까닭 모를 래객들이 놓고 가는 것에 틀림 없”며 “왜 그들 래객은 돈을 놓고 가나 왜 내 안해는 그 돈을 바다야 되나 하는 禮義 관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그 때이다. 그러나 그는 “획득했다는 결론이 오즉 불쾌하다는 것뿐이었으면서도 나는 그런 것을 안해에게 물어보거나 할 일이 참 한번도 없”는데 “대체 귀찮기” 때문이다. 즉 “나”는 귀찮다라는 말로 아내의 직업에 대한 결론을 유예시킴으로써 계속 안해의 행동을 관찰한다. “나”의 관찰은 엄밀히 말하자면 엿보기의 관찰인데 그것은 “안해의 높지도 알지도 않은 말소리는 일즉이 한 마디도 노쳐본 일이 없”을 만큼 집요하게 진행된다. 이런 서술태도로 안해의 모습은 더욱 타자화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안해”라는 타자의 모습은 요부의 모습으로 귀납되는 것이 이 소설의 기본적인 서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안해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제시하면서 “안해”를 요부로 그리는 방법에는 “안해”와 “까닭 모를 래객들”에 관한 엿보기의 방법 외에 “아달린”의 투약 사건도 있다. 아달린은 무엇인가. 1938년에 출간된 의학사전에 의하면 아달린(adalin)이란 ‘carbromal’이란 약품의 상표명이다.<sup>37)</sup> carbromal은 흰 결정체로 된 무향의 가루이며 주로 진정제(sedative)나 최면약(hypnotic)으로 사용되었다. 5에서 15그레인(grain)정도를 복용한다.<sup>38)</sup>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달린을 수면제로 알고 있지만 이 약은 원래 환각성이 있는 약이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가 아달린을 먹고 깨어난 뒤 “아스피린, 아달

37) W. A. Newman Dorland, A. M., M. D., F. A. C. S, *Medical Dictionary (Eighteen Edition)*, Philadelphia and London, W. B. Saunder Company, 1938, p.48.

38) 위의 책, p.226.

린, 아스피린, 아달린,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이라고 중얼거린 이유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환각성이 있는 약 성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sup>39)</sup>

#### 4. “퓨리탄”과 팜므 파탈

이상에서 「지주회시」의 “나”와 「날개」의 “나” 그리고 李箱의 주변인들이 모두 금홍이란 여인을 요부로 만드는 데 합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란 여성이란 타자가 “내의지대로작용하지안”기 때문이다.

타자인 여성을 정복하기 위한 남성의 노력은 영원한 여성성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낳게 되었는데 이 이미지들은 두 개의 여성 이미지로 변주된다. 하나는 모성으로서의 여성 이미지이며 다른 하나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이미지이다. 이를테면 이 이항대립적인 여성 이미지는 이브/마리아, 아프로디테/디메테르, 붉은 머리/하얀 머리, 창녀/성녀, 매춘부/수녀 등의 관계로 나타난다.

“나”에게 “안해”는 “나”를 흡혈하는 “거미”이자 살인자의 모습을 갖는다. 그가 “안해”를 이같이 요부로 그린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두 소설에 의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가 문제삼는 속임의 범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체의 방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조 부재의 사실을 속이고 있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그녀들을 요부로 “환태”시키는 이유다. 말하자면 그가 문제삼고 있는 정조는 육체의 정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정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이 이상의 성적 기행을 평가하면서 “『絶對의 愛情』을 찾아 마지않는 한 『퓨리탄』<sup>40)</sup>의 모

39) 이는 「童散」(『조광』, 1937. 2)의 “나는 阿片이 좀 생각났다”(p.147)는 구절과 연결된다. 그는 마약과 같은 환각제를 경험했던 것 같다.

습을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한다.

이런 “안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정체성은 희생당한 자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때 희생당함이란 데카당 남성이 타자를 참수시키는 자로 보고 대신 자신을 희생물로 보면서 자신의 타락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sup>40)</sup> 버지니아 메 앨런에 의하면 요부의 이미지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유행했던 것은 당시 여권신장을 요구하던 신여성과 관련이 있다.<sup>42)</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팜프 파탈은 빅토리아 남성이 독립을 요구하는 신여성과 부닥뜨렸을 때 느낀 공포와 욕망이 결합된 산물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19세기 말 세계관의 혼란을 겪고 있던 데카당한 남성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집단적 이미지인 것이다.

이상의 시대도 신여성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주장하던 때였다. 그러나 우리의 신여성들은 그들의 주장에 걸맞은 경제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표면적인 현상만 정리한다면 새로운 근대적 교육과 교양을 쌓은 신여성들이 사

40) 김기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가 세상사람에게서 흔히 눈총을 맞게 된 것은 技師의 자리를 내찬 뒤에 그가 관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찾집이 아니면 『카페』와 같은 좀 난잡한 방면이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카페』를 가장 나무라는 사람이 실은 가장 그런데를 드나들기 좋아하는 사람이며, 도덕과 윤리의 얼굴에 흠칠을 하는 패인 것이 세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그들의 假面을 벗기면서 『폴 좀 보자구나』고 기껏 놀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상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한 생활을 해가기에는, 그에게는 현실이란 것 자체가 도대체 우수꽝스럽고 무의미하기 짝이없는 것이다. 또 이른바 『품행방정』에 속하지 못하는 그의 사생활을 나무라는 편도 없지 않았다. 인간과 세계가 비극이 아니라 차라리 희극으로 밖에는 눈에 비치지 않는 그가 (…중략…) 흥미나 염치나 비위가 어떻게 있었을까보냐? (…중략…) 그러면서도 그는 실상은 메마른 형식이 아니라 『絶對의 愛情』을 찾아 마지 않는 한 『퓨리탄』이었던 것이다.”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이상 선집』, 백양당, 1949. pp.4~5.

41) Virginia M. Allen, 위의 책, p.79.

42) Virginia M. Allen, 위의 책, pp.291~294 참조.

회로 진출했을 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했다.<sup>43)</sup> 더욱이 “남자가 대량적으로 失業의 渦中에서 헤매”던 때였다.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녀성의 독특한 性的魅力”을 수단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김기림의 말을 빌자면 “점두에서 물건을 파는 女店員이나 靑樓에서 손님을 손질하는 娼妓나” 마찬가지로인 셈이다.<sup>44)</sup> 즉 자신들의 “眞操”를 담보로 직업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인데 이럴 경우 그 극단에 이른 것이 “娼妓”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신여성들은 미약한 존재였다. 그만큼 남성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의 존재도 미약했다. 그들이 위협과 경계를 느낄 수 있었던 대상은 결국 금홍과 같은 ‘카페걸’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염상섭의 작품들에서도 우리는 팜므 파탈의 이미지들을 읽을 수 있지만 그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여인들 역시 카페걸이나 작부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민지 남성 작가들이 신여성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공포와 경계심이란 그녀들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들에 의해서 봉건 남성의 기존 질서를 훼손당한다든가 자신의 순수한 애정을 훼손당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 쪽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속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상 소설의 “나”와 이상의 주변인들은 모두 금홍이 요부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왜 요부인가 하는 점에서는 서로가 각각 다른 이유를 지닌다. 이상의 주변인물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정조없는 ‘모-꼴’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라는 다소 위선적인 도덕 위에 근거하지만 이상은 정조 없음의 사실을 속이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이 이상을 가리켜 “『絶對의 愛情』을 찾아 마지않는 한 『퓨리탄』”이라 말하며 주변의 속물들을 야유한 것은 이런 이유

43) 당시 신여성들의 취업난을 호소하는 자료들은 잡지 『신여성』만 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직업부인좌담회」, 『신여성』, 1933. 4 참조.

44) 김기림, 「職業女性的 性問題」, 『신여성』, 1933. 4. pp.28~33.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게 유혹과 두려움의 여인의 실체는 근대의 속물적 도덕관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내성적 힘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의 문학에 나타난 성문제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다. 즉 이상의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貞操”의 문제란 당시 “성적 아나키” 상태에 직면해 있던 직업여성의 성윤리라는 맥락 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금홍 이후 이상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야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 필자 : 인하대 강사

## Abstract

### Sang's novels and "femme fatale", centered on "Geum-Hong"

Kim Myeon-Soo

This Thesis is going to discover how the woman, the other of me met "me" and not only how "my" identity constructed through the meeting but also what figure the other assumed in the sophisticated narrative tactic of Lee Sang's novel, centering attention on "Geum-Hong" who had the image of femme fatale.

It is seemed that Geum-Hong was a prostitute in the spa of Bae-Cheon when they met first. After Lee Sang, she came to the capital city(京城), where she was transmuted into the current "modern girl". Lee's friends were attracted by her as well as on the alert. That is to say, they treated Geum-Hong, a modern girl in the capital city, as femme fatale. Lee cohabited with her for two years and a half in the city. After leaving her, Lee wrote 「Tarantula meets a pig」, 「the feather」, 「the memoir of meeting and leaving」, etc., in which "my" "wife" has the image of "tarantula" or killer eat "my" blood. In 「Tarantula meets a pig」, Lee compared Geum-Hong to "tarantula". This comparison is similar to the vampire, the symbolic image of femme fatale. And in the 「the feather」, he described her as the femme fatale of threatening even his life, appropriating the narrative principle of deceit. He criticized her prostitution. That was however not the problem of body but of body. On the other word, that was why she didn't act as he wanted to. So he became a victim in the relation of that wife in his novels.

In the case of Occident, the image of femme fatale is associated with



the “New Woman” who maintained their rights in the early 19th century. Although there were “New Woman” in Lee’s time, those women of colony cannot be so strong. They were often to make their living by selling their sexual attraction because they didn’t have sufficient economic basis in spite of their new thought. The fear that such a reality of New Woman gave to contemporary men is just to hurt the system of premodern family or to betray the pure love of men. That was why Lee also desired absolute affection from Geum-Hong who he described as *femme fatale*.